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기독교윤리학개론

1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상충적 절대주의

■ 개요

- “절대”들이 존재한다.
- 둘 이상의 도덕적 ‘절대’들이 존재할 때의 모순
- 세 가지 해결방법
 - 1) 모순 전체는 명백하지만 실재하지 않는(개념)이다.
 - 2) 모순 실재성 인정.
어떤 길(방법)에서도 범죄하게 되어 있다.
 - 3) 모순은 간헐적, 훌륭한 일을 하면 무죄 (?)

2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■ **전제 요소**

1) **타락한 세상은**

현실적인 도덕적 모순이 발생하기 마련

2) **두 가지 의무가 모순될 때**

인간에게는 두 의무에 대한 책임이 다 부여된다

3) **하나님의 율법은 죄 없이는 결코 파괴될 수 없다**

→ 사람은 덜 나쁜 것을 해야 하고

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할 것 (?)

3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상충적 절대주의의 역사 배경

■ **그리스 세계의 뿌리**

1) **고대 그리스 비극론**

2) **덜 나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**

3) **소포클레스와 유리피데스 (BC. 5C)**

→ 회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맞서

**→ '극화된 딜레마' 들은 상충적 절대주의가
해결해야 하는 현실 세계 도덕 갈등의
본질을 반영**

4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**종교개혁 사상에 통합됨**
 - **‘덜 나쁜 것’ 이라는 개념은**
 - M. Luther의 타락 교리에서 새로운 차원
 - ↓
 - 루터의 사상은 상충적 절대주의 맹아를 담다
 - ↓
 - ‘두 개의 왕국 교리’ (하나님의 왕국, 현세의 왕국)
 - * 들은 언제나 대립
 - ↓
 - 기독교인은 양쪽 모두에 책임

5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[루터의 적용]

- **멜랑히톤에게 보내는 편지**
 - “우리는 담대하게 죄를 범해야...”
 - 덜 나쁜 것을 선택하라는 말로 해석
 - “죄인으로 대담하게 범해도 그보다 훨씬 더 대담하게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”

[틸리케의 적용]

- 이것은 어떠한 타협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의미 x
- 그리스도 세상의 형식에 있다

6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타협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정복, 극복
- 죄는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지만
 십자가로 극복
- 현대 실존주의 사상과 통속적 사상 속에
 모순을 드러내게 됨
- “나는 두 가지 나쁜 일 중에서
 덜 나쁜 일을 했다.” ←----- 상충적 절대 주의
 → ‘덜 나쁜 견해’(the lesser evil view)

7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틸리케

- 상충적 절대주의의 가장 포괄적 설명
- 주요 개념
 - 현실 세계는 도덕적 갈등이 불가피
 - “갈등 상황을 부정해서는 결정을 부정하는 것”
 “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
 애매모호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 높다”
 - “갈등 회피가 아닌,
 갈등을 이겨내고 견뎌낼 때에만
 결정을 내릴 수 있다”

8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■ **주관성**

- **갈등적 상황에서는 죄가 불가피**

→ **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**

죄가 되기 때문

→ **행동은 사실상 하나님의 요구와 현실 세계
허용치 간의 타협으로 작용한다.**

예) **정당 전쟁!**

“나는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보다

더 잘못하고 있다는 나 자신의

생각이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만 결정!”

9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■ **선과 악**

- **도덕적 타락은 도덕적 딜레마의 원인**

- **도덕적 갈등은 창조에 의해**

세상에 부여된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

↓

오히려 타락과 관련된

이야기에 나오는 원초적 결정에

궁극적 뿌리

- **도덕 갈등은 – 현실 세계가 타락한 세계라는**

사실에서

10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하나님은 도덕적 딜레마를 원하지도, 만들지도 X
- 현실세계는 이상 세계가 아니라 타락한 세계
→ 이와 같은 세계에서는 악과 직면할 수 밖에
- 이상의 전제는
→ 우리는 덜 나쁜 것을 선택할
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됨
- '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의 병존' 에
→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지 않다.

11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■ 한정

- 실용적 정당화 불가능
- '더 나쁜 일 하지 말라'는 슬로건
→ 비 기독교적 실용주의에 종속
- 윤리적 파멸의 결과
- '더 나쁜 일을 양기 위해서 나쁜 일을 해도 된다?'
→ 목적이 수단 정당화?
- 기독교인은 단지 갈등적 상황에서
두 가지 명령이 존재 하므로 도덕 의무로서의 죄가
불가피하다는 것

12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- 덜 나쁜 죄와 더 나쁜 죄 인식 속에
→ 기독교인은 덜 나쁜 죄를 범해야
- “우리는 애매모호한 상황을
견뎌내거나 극복해 낼 수 있다
그리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갈등은
항상 용서 받는다...”
- “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보호 아래 행해지는 모든
행동은 → 선행 왜곡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...”
→ 대신 용서를 구할 필요
용서를 받아야만 한다.

13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상충적 절대주의의 기본 전제

- 하나님의 도덕 법칙은 절대적이다
 - 율법은 완전하다(시 19:7) 영원하다(시 119:160)
 - 하나님은 율법이 파괴되도록 만들지 않았다.
 -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(절대 완전) 반영
 - 율법 파괴 = 죄 = 불법
 - 불변
 - 거짓말 하실 수 없다 (히 6:18)
 - 목숨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불법

14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■ **도덕 활동은 불가피하다**

- 상충적 절대주의의 전제 ←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
- 타락한 이후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됨
- 타락 세상: 모든 선택이 잘못이라는 비극적 딜레마
-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

율법 중의 하나를 어길 수 밖에 없다

- 항상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완전성/기준에 복종
≠ '당위는 기능을 함축한다'(칸트)
- 천성은 악한 세계, 하나님의 이상과 동떨어져.

15

Introduction to Christian Ethics

■ **덜 나쁜 것을 행할 의무**

- "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"(요 19:11)
- 용서받을 수 없는 죄: 성령 훼방/모독
- 덜 중요한 의무 배제에 대한 죄책
- 우리는 선이 최소화 되어 있을 때도 그것을 최대화

■ **용서는 가능하다**

- 용서가 항상 가능하다
- 죄의 불가피성이 인간들로 하여금 용서의 십자가에
- 덜 악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음을 고백
→ 용서가 가능하다

16